공방, 정원과 차를 나누는 이웃

오타



Qingliu — 부드러운 거즈와 수선된 주머니

07

오타

Qingliu — 부드러운 거즈와 수선된 주머니

07 섬 이야기



조용한 옷 수선사는 직물의 짜임과 편안한 솔기를 소중히 여깁니다. 그래서 이중 거즈가 큰 로고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. 한 손으로 이미 수선한 주머니 가장자리를 들어 올리고, 다른 손에는 삼림계차가 든 낮은 찻잔을 듭니다. 사람 손가락 사이에 작은 바늘을 끼운 표현은 없습니다.

구입한 삼림계 우롱차

함께 마신 차

TEA.TOYS

의상 07 보기